

정보통신연구진흥원

www.iita.re.kr

▶ IITA, 혁신브랜드로 u-Mate(유메이트) 선정

IITA는 혁신브랜드로 u-Mate(유메이트)를 선정하고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혁신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다. u-Mate는 'IITA가 IT분야 종합지원 기능을 기반으로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는 고객의 R&D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u-Mate는 'ubiquitous bridge institute - Mutual Advancement through Technology Enhancement'의 약어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온 ITFIND, 한이음 등의 고객지원 시스템과 IT신성장동력사업 등의

R&D사업들이 u-Mate라는 브랜드와 같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성옥 원장은 "이번 혁신브랜드 선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IITA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IITA, 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IITA가 기술이전촉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의한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IITA는 벤처기업 기술 현물출자, 금융기관 등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행한 기술평가 결과는 공인감정의 효력을 갖게 돼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ITA는 IT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진흥기관으로써 기술평가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상정립과 함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R&D사업 경제적 타당성 평가, 휴면기술 발굴 및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IITA는 지난 2003년 이후 2,430여 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하는 등 R&D 결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성과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록 하기 위해 핵심연구결과로서 분기당 1개씩 연 2~3개로 설정하였고,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은 핵심서성과 위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것으로 하여 마일스톤 종료시점에서 핵심결과의 성공여부 판단시 참고할 만한 수치 값/기준값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협약의 목적은 대상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IITA PM실과 과제책임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문의처: 장선호 기술역(042-710-1181), 이민경 연구원(042-710-1182)

▶ 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품·융합분야 신규과제 접수 결과

2007년도 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품/융합분야 5개 과제(부품3, 융합2)에 대해 신규과제 접수 결과, 과제경쟁률이 과제당 2.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최고 경쟁률 4:1).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술수요 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로드맵, 특허분석 등 사전기획 및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과제기획의 내실화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신규과제 평가는 2월 22~2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연구수행기관은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IT부품/융합분야 계속과제 수행계획 협의확인 완료

2007년도 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부품/융합분야 계속과제 25개 과제(부품16, 융합9)에 대해 수행계획 협의확인을 완료하였다. 각 대상과제의 협약을 위해 IT부품/융합전문위원실과 과제책임자가 함께 마일스톤 및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과제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 IITA, 정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 성적 상위권

기획예산처의 최근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지수 평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6개 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고객만족 평균 성적(81.9점)이 정부 산하기관 전체 평균(79.4점)을 웃도는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86.2점)와 정보보호진흥원 83.4점에 이어 83.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 IITA, 모든 업무에 ISO 9001 인증 획득

IITA이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연구기획 및 자금운용 등 IITA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이번 ISO 9001 인증 확대는 공공 R&D의 품질향상과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TA는 지난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중 최초로 연구관리분야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새로운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올해에는 전사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인증범위를 확대코자 노력해 왔다.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개선 제안사항이 100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IITA의 ISO 9001 인증 확대로 고객들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공 R&D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IITA은 앞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는 신품질혁신대상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

IT SoC 산업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IT- SoC협회

www.itsoc.or.kr

▶ IT-SoC조찬세미나 개최

회원사 간의 교류확대 및 정보교환의 일환으로 기획된 IT-SoC조찬세미나가 회원사 CEO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이사이자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진대제 전 장관이 초청인사로 참여하였으며 “한국 SoC업계의 글로벌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진대제 전 장관은 세계반도체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융복합 시대에 대비한 사업전략이 필요하며 반도체 제조 원가 상승과 각종 기술적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국 Fabless업계는 사업제휴 및 M&A를 통한 규모의 성장을 이뤄 해외진출 및 판매처 다변화, 국제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IT-SoC협회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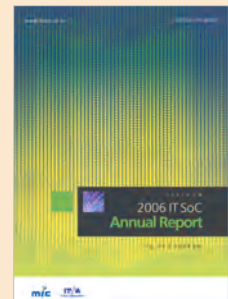
IT-SoC협회는 지난 2월 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황기수 협회장(코아로직 대표이사)을 비롯하여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 IT-SoC협회 사업결과 및 2007년 사업 계획 총회

상정과 협회 회원사 정리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IT-SoC협회 황중범 사무총장은 2006년 사업결과와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였으며 이 사회의 이익 없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승인되었다. 또한 회원사 중 휴업이나 폐업한 10여 개 회원을 2007년 2월부터 제명하기로 승인하였다.

▶ ‘2006년도 IT SoC Annual Report 및 기업편람’ 발간

‘2006년도 IT SoC Annual report 및 기업편람’ 이 발간된다. 이번에 발간될 Annual Report와 기업편람은 IT-SoC협회의 자체 조사자료는 물론 전문시장조사기관의보고서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편집위원과 감수자로 위촉하여 한층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2006년도 IT SoC Annual Report’는 세계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기술개발동향, IP시장 및 표준화, 주요 국가 산업동향, 국내 산업동향, 정부 정책 등이 담겨 있으며, ‘2006년도 IT SoC 기업편람’에는 국내 90여 개 SoC 기업들의 경영현황은 물론 주요 제품들에 대한 소개가 실려있다. Annual Report와 기업편람은 우리나라 IT SoC 산업 전반에 관한 각종 시장, 기술 정보는 물론 국내 SoC 관련 업체들의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집약해 매년 초 IT-SoC협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 SoC 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Annual Report와 기업편람은 3월 초 회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 2006년 과제별 보고서 발간

IT-SoC협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수행하였던 각 개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작년 한 해 IT-SoC협회는 <IT SoC산업기반조성사업>, <IP 개발코딩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각 개별 과제별로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개별 사업의 소개, 추진내역, 추진 결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한 해 동안 수행된 협회의 활동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IT SoC산업기반 조성사업>은 IT-SoC Fair 2006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IT SoC 매거진/IT SoC Annual Report 및 기업편람 발간, 해외 SoC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 SoC 업체의 제품·기술 홍보 등 SoC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된 협회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 보고서에 그 내역과 결과물이 담겨있다. <IP 개발코딩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연구> 보고서는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계획, 2006년 표준화 연구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oC포럼> 보고서는 SoC포럼의 구성 및 운영, 2006년도 주요 추진실적, 2007년 주요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oC산업진흥센터

www.asic.net

▶ 2007년도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IT-SoC 연구과제 신규 RFP 발걸조사

SoC 산업진흥센터에서 수행하는 SoC개발실습프로젝트 신규 RFP가 2006년 연말부터 진행되어 몇 차례의 소회와 워크샵 통해 2007년 1월 20일경에 확정되었다. RFP 도출 워크샵은 2007. 1. 18~19일 양일간, 홀리데이인 성북에서 개최되어 30여명의 외부전문가와 10여명의 센터내 부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RFP를 도출하였다. 2007년도는 9개 기술영역에서 24개의 신규 RFP가 도출되었고 과거 RFP중 29개를 포함하여 총 54개의 RFP가 공고되었다. (상세내용은 www.asic.net 참고) 07년 신규 선정과제 수는 기존 영역 14개와 신규 5~7개를 포함하여 총 20여

개를 예상하고 있다. 일정은 2007.2.16(금)까지 과제 접수를 받고 2월말에서 3월초에 선정평가를 거쳐 3월중순경 협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 문의처: SoC아키텍트양성팀 김창선 (richard@etri.re.kr, 02-3433-6033)



▶ SoC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성과와 인력수급전망 분석 실시

IT SoC핵심설계인력양성 사업의 향후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SCM 기반의 SoC설계인력양성 사업 방향수립과 방법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수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IT SoC 분야의 인력수급전망 분석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첫째 사업성과분석은 양적성과와 질적성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양적성과는 IT SoC설계전문인력 배출, 산업체 인력의 설계실무 능력 향상, IT SoC전공인증과정 운영, 설계실습프로젝트 수행실적, IT SoC 전공인증서 취득자의 활용실태 등을 위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질적 성과는 SoC 교과과정의 질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의 타당성, 실습중심의 교과과정 운영효과(설계특론, 프로젝트 수행), IT SoC 전공영역의 확대효과,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의 개선, IT SoC전공인증서 취득자의 현장 적응능력, 현황분석과 발전전략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IT SoC 설계전문인력 수급전망에 대해서는 수급과 프로세스, 그리고 수급차와 전망으로 진행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IT SoC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배출 인력과 산업체 수요인력 실태조사, 교육기관과 기업간 SoC인력 흐름, IT SoC 전공인증과정을 통한 인력수급 프로세스와 분야별 수준별 수급차 분석과 전망 등 비효율적 원인을 분석하여 SCM 관점에서 IT SoC인력 수급 모델링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문의처: SoC아키텍트양성팀 손진우 책임 (jwsohn@etri.re.kr, 02-3433-6031)

▶ IT-SoC전공인증과정 2006년 동계 설계특론

IT-SoC아카데미에서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총 29개 과목의 동계 설계특론을 실시하였다. SoC전공인증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설계특론은, SoC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석박사 학생의 실습교육 강화와 대학원 SoC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하게 방학기간 중에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에는 70여명의 강사진이 동원되어 총 29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수강신청 기준으로 676명이 등록되어 실습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강의에 따라 30시간에서 60시간 강의로 구성된 이번 설계특론은 IT-SoC아카데미 가라동 교육장 뿐 아니라 광운대, 한양대(안산),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

대 등에서 분산 실시하여 서울외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SoC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재학기간동안 SoC전공인증과목과 더불어 총 4주(석사과정)~8주(박사과정)의 설계특론을 이수해야 SoC전공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 설계특론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계방학기간에만 실시되며, 2007년 8월 또는 2008년 2월에 졸업하는 SoC전공인증과정 학생들은 인증서 수여식이 있는 2007년 12월까지 설계특론 이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문의처: SoC아키텍트양성팀 최대수(daesoo@etri.re.kr, 02-3433-6064)

▶ SoC 석·박사 설계인력 168명 배출

SoC산업진흥센터는 지난 2월22일(목) 송파구에 위치한 IT-SoC아카데미에서 제5기 IT-SoC전공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IT-SoC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168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과정 참여교수 및 SoC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와 우수자 시상이 진행되었고, 이 외에도 2006년도 IT-SoC전공인증과정 추진결과를 보고하고 IT-SoC전공인증과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SoC산업진흥센터는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IT-SoC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IT-SoC전공인증과정을 통해 총 482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인증서를 받았으며, 2007년에도 200명 이상의 인증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국내 60개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IT-SoC전공인증과정의 참여 학생들은 재학 대학원에서 SoC전공교과목을, SoC산업진흥센터에서 산업체 시스템 기반의 실습을 위주로 진행되는 설계특론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인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IT-SoC전공인증서 취득 학생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개발실습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IP설계연구, MPW 칩 제작 등의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 1월에는 졸업논문발표회도 가졌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하여 전공인증과정 수료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우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력양성 후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주)삼성전기, (주)코아로직 등 14개의 SoC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 문의처: SoC아키텍트양성팀 조영민 (ymcho@etri.re.kr, 02-3433-6037)



▶ 교재 개발

IT SoC설계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반구축은 IT-SoC 전공인증 교과과정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추진해 왔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전공인증과정의 16개 과목중 5개 과목의 강의콘텐츠가 개발되었다. 개발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IT-SoC전공인증과정 참여대학에서 인증과목의 강의교수 또는 동 콘텐츠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하는 참여교수는 시스템의 활용신청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활용에 따른 의견과 발견되는 오류, 수강학생들의 반응 등과 피드백 내용은 강의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정, 개편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개발된 강의콘텐츠는 2월중 동계 설계특론을 통해 IT-SoC 아카데미에서 개설되었으며, 이를 온라인 강의콘텐츠로도 제작, 편집 중에 있다. 온라인 강의콘텐츠는 향후 강의 및 참여교수가 활용하도록 하며, 기 수강자들의 복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분	과목명	개발팀
전공 공동	SoC 구조	최기영 교수(서울대, 개발책임자), 채수익 교수(서울대), 이현재 교수(서울대), 김수환 교수(서울대)
	SoC 설계방법론	김태환 교수(서울대, 개발책임자), 하순희 교수(서울대)
	IP개발 및 시스템 집적	유광기 교수(한밭대, 개발책임자), 서기범 교수(우송대), 박인학 대표이사(시스템센터로이드)
전공 선택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	장래혁 교수(서울대, 개발책임자) 정성우 교수(고려대), 정의영 교수(연세대)
	저전력 시스템 설계	김규현 교수(경희대, 개발책임자) 박광훈 교수(경희대), 서덕영 교수(경희대), 김진상 교수(경희대), 윤경로 교수(건국대), 김문철 교수(CU), 신동규 교수(광운대), 이영렬 교수(세종대)

2006년에 1차로 개발된 강의콘텐츠는 주교재로 활용하며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서적(textbook) 저술을 2차 개발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서적 저술이 추진된다면, 국내에서 개발된 강의콘텐츠가 SoC 분야에서 전세계 전문가들이 기본 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문의처 : SoC아키텍트양성팀 김은옥 책임 (eokim@etri.re.kr, 02-3433-6061)

▶ 2007년 IT SoC 산업기반조성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T SoC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IT 시스템의 핵심부품 자립화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7년 IT SoC 산업기반조성 사업설명회를 2월 6일 한국과학기술사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내 SoC 개발 촉진 및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ETRI SoC산업진흥센터의 2007년 IT SoC 산업기반조성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유관기관인 IT-SoC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 또한, EDA공급사, IP 공급사, 파운드리 등 센터 협력기업들이 2007년 지원전략을 발표하여 SoC산업분야의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SoC 산업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2007년 사업은 •SoC 설계환경 지원, •IP기반 SoC설계기술 지원, •SoC 시제품 개발 지원, •SoC 시험 지원, •SoC 창업 및 성장육성 지원, •SoC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연구결과 IP 상용화 지원 등의 세부 지원으로 구성되

어 SoC를 개발하고자하는 팹리스업체를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SoC 관련 중소기업, 창업보육회사, 대학, 연구기관, EDA 공급사, IP 공급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등 총 73개사 90여명이 참석하여 SoC 개발과 IT SoC 산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문의처 : SoC산업기술팀 장인수 (janginsu@etri.re.kr, 02-3433-6087)

▶ 2007년도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결과

SoC산업진흥센터에서는 올 한 해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활용하기 위해, SoC 관련 팹리스업체를 대상으로 센터에 구축·지원되어야 할 EDA툴 및 검증장비, IP, SoC 제작, SoC 시험 및 계측장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2월 추가로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30여개의 SoC관련 업체가 수요에 응답하여 센터 내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세부 지원서비스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EDA툴 부분에서 80여개 업체로부터 약 100여종 700 copy의 신규 툴 도입 또는 기존 툴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제기되어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30여개사로부터의 약 40여종 IP에 대한 수요와 20여개사로부터의 30여개 SoC 시제품개발에 대한 지원 수요가 있었으며, 시험지원 부분은 40개 업체가 약 80여 건의 신뢰성시험과 전기적특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수요가 제기되었다. SoC산업진흥센터는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EDA 툴, IP 및 검증장비, SoC 시험 및 계측장비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처 : SoC산업기술팀 이자영 (cyanblue@etri.re.kr, 02-3433-6091)

▶ 『연구개발용 IP 상용화 지원』프로그램 신규 추진

올해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연구개발용 반도체 설계자산(IP)이 반도체 설계전문(팹리스) 기업 지원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RI IT융합·부품연구소 산하의 SoC산업진흥센터를 통해 국책 연구과제로 개발된 반도체 IP를 재가공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이 저렴하게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용 IP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SoC산업진흥센터를 통해 ETRI가 보유한 IP를 대상으로 산업체 수요에 따라 IP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책 연구개발에서 상용수준의 IP가 중간 성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반도체 IP에 대한 유통기준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IP는 90nm 및 130nm 공정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데이터 변환 및 전력 관련 아날로그 IP 등 약 40여 종이고, 이 중에서 산업체의 수요조사('07년 3월 예정)를 통하여 4~6종을 선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IP 가공 및 국내의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용 IP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은 ETRI의 연구개발 기능과 산업지원 기능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ETRI가 개발한 연구개발용 IP를 상용화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국책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내 IP기반 SoC설계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SoC설계역량을 강화하고 IP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가의 해외 IP 수입대체 효과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처 : SoC산업기술팀 김진혁 (jhkim99@etri.re.kr, 02-3433-6092) 